



분필가루가 날리지 않는 쾌적한 우리교실!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

지금 우리의 선생님과 학생들은 100년이 넘는 원시적인 형태의 분필사용으로
원시먼지 수준의 미세먼지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.
중위압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(HCHO), 이산화탄소(CO2), 미세먼지(PM10), 총부유세균 등
교육환경 개선을 향한 꾸준한 노력의 성과로 각종 첨단 교육장비가 우리교실에
자리잡고 있지만 1세기가 지나도록 사용되고 있는 원시적인 형태의 분필사용은
우리의 선생님과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.



• 학교실내에 분필가루가 날려서, 교실의 공기 질이 나빠져서,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학교에 사용해야 할 필수품입니다.

백상분말소독제 사용의 파생효과

